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9.(화) 16:00 (총 5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수도권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사무관	윤기 이일용	전화번호 031-8025-5020

설 연휴(2.11~2.14.)

평년 웃도는 기온, 잦은 안개 조심

- 수도권 평년보다 기온 높아 낮 동안 포근, 일교차 유의
- 수도권서해안과 일부 내륙 밤~아침 사이 잦은 안개, 서해상 바다 안개 조심
-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, 항공기·선박 이용객 운항정보 사전 확인

2/10(수)	2/11(목)	2/12(금) 설날	2/13(토)	2/14(일)
수도권 날씨 ☁️ 구름많음	☀️ 대체로 맑음	☀️ 가끔 구름많음	☀️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짐	☁️ 구름많음
서해중부해상 파고 0.5~1.5m	0.5~1m	0.5~1.5m	0.5~1.5m	1~2m
최저 -4~2℃ 최고 7~9℃	최저 -3~2℃ 최고 8~10℃	최저 -4~1℃ 최고 7~12℃	최저 -3~2℃ 최고 9~12℃	최저 -2~2℃ 최고 8~11℃
← 평년보다 높음 →				



[(위) 연휴기간 날씨 요약 (아래) 10~13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]

- 수도권기상청(청장 김성균)은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2월 11일(목)~14일(일)의 기상정보를 발표하였다.
- 이번 설 연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많겠고, 아침에는 잦은 안개에 따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[기압계 전망]

- 수도권기상청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가운데, 가끔 구름만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고기압에 의해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 가열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됨과 동시에,
- 공기의 상하층 혼합이 약해지는 등 우리나라 주변의 대기가 안정되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.
- 한편, 14일은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들고 북서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면서 서해상에서 비 구름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로 인해 14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은 “북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찬 공기의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경우, 비 구름대의 발달이 앞당겨지면서 14일 오후에는 수도권에서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”고 덧붙였다.

[기온 전망]

- 10일(수)~13일(토)은 온화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고,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(일최저기온 : -6~-3℃, 일최고기온: 4~6℃)보다 3~7℃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.
 - 특히, 12일(금)과 13일(토) 수도권에는 낮 최고기온이 10℃를 넘어서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.
 - 한편, 구름 없는 맑은 날씨로 인해 밤 동안에는 지표면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,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℃ 이상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전했다.
- 14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전일(13일)보다 2℃ 가량 낮아지겠고, 이후에도 기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16일(화)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.

[안개 전망]

- 이번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,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고, 낮 동안에도 안개가 완전히 소산되지 못하고 연무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.

- 특히, 11~13일 아침에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에서는 안개로 인해 풍부해진 습기가 도로면에 얼어붙으면서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,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.

※ 연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 참고

- 또한, 온화한 남서풍에 의해 해상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, 서해중부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발달하면서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매우 짧아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
- 수도권기상청 예보관은 “서해안 지역에 위치한 인천대교, 영종대교, 서해대교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안개가 낀 경우 차량 간의 거리를 넓히고 주행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”고 당부하는 한편,
- “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등 서쪽 지역의 공항을 중심으로 새벽~오전에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”며,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.

【 11~13일 오전 인천 및 김포공항 가시거리(시정) 예상 】

공항명	11일	12일	13일
인천	2시~12시 400m 이하 (최단시정 50m)	3시~10시 400m 이하 (최단시정 100m)	3시~11시 400m 이하 (최단시정 50m)
김포	3시~11시 600m 이하 (최단시정 100m)	5시~10시 600m 이하 (최단시정 100m)	5시~10시 600m 이하 (최단시정 100m)

※ 그 밖의 청주·광주(군 공항) 등 내륙 공항에서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므로, 사전에 항공기 운항 정보 확인 필요

[해상 전망]

- (바다 안개) 온화한 남서풍이 차가운 해수면과 만나면서 서해중부 해상에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,
- 서해중부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,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[설 연휴 기상 정보]

- 또한, 수도권기상청은 2월 9일(화)부터 육상 날씨뿐만 아니라 해상·공항·항만 등의 날씨정보를 아우르는 설 연휴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 기상청이 제공하는 설 연휴 기상정보는 날씨누리(<http://www.weather.go.kr>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수도권기상청장은 “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를 감시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며,
- “예보 불확실성이 큰 14일 날씨에 대해서는 12~13일에 더욱 상세한 예보가 발표되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전했다.



지역별 자세한 날씨는
2월 9일(화)부터 제공되는 “설 연휴 기상정보”를 참고
<http://www.weather.go.kr/w/special/newyear/index.do>